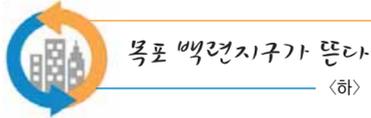


원도심 활성화에 부동산 열기 '후끈' 올 첫 분양 새천년건설 '천년가' 주목



인근 용해지구 분양권 웃돈 거래 다가구 주택 등 개발 기대치 높아 산단 인구 유입 전셋값도 상승

목포시 연산동 용해지구가 성공리에 기반 조성을 마치면서 지역 투자자 및 내집마련 수요의 눈길이 인접한 백련지구로 향하고 있다. 8월 입주 예정인 용해지구 골드클래스 7차의 분양권이 이미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백련지구 역시 분양을 앞두고 호응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백련지구엔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휴먼시아' 브랜드로 2018년께 공공분양을 계획중에 있으며, 이에 앞서 오는 10월께 새천년종합건설이 '천년가' 브랜드로 민간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목포 주택시장은 변화중...구도심 유입 가속화=목포시는 전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생활권의 변화가 발생했다. 목포시정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에서 옥암·하당으로, 그리고 남의 신도시로 생활권이 동쪽으로 향했다. 상대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신도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포시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과 용해·백련지구 개발이 가속화하면서 다시 구도심으로 이주가 시작되고 있다.

백련지구에 앞서 조성된 용해지구의 빠른 정착이 그 증거다. 임대 아파트였던 골드디움 5~6차에 이어 골드클래스 7차가 내달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그동안 구도심권에서 보기 힘들었던 분양권 웃돈 거래도 일어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달아오르는 부동산 열기를 실감하고 있다.

용해지구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용해지구는 용해초등학교에 이어 2017년엔 정호중학교가 개교하고, 치안센터도 신설되면서 생활환경이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며 "골드클래스 7차의 경우 일부 저층을 빼곤 모두 계약이 완료됐다. 기준층은 1500~2000만 원 선에 프리미엄이 형성돼 거래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파트 외에도 다가구 주택 건설 등 주거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치도 높은 편이다. 구도심권에 빠르게 인구가 늘고 있는 이유는 목포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와 외부인구 유입 등 호재를 맞았기 때문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 지역 전체 업체 수와 종사자는 2010년 각각 1만9109개 업체, 7만1447명이었으나 2013년엔 업체 수 2만267개, 종사자 수 7만5574명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기록중이다. 현재 용해지구 인근의 삼진·산정·세리믹 산단 등 3곳만 해도 533개 업체에 4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단 종사자 등 인구 유입으로 용해지구 인근의 전



목포시 연산동 백련지구에 분양을 앞둔 새천년종합건설의 새 아파트 '천년가' 예상 조감도.



새천년건설이 시공한 여수박물관(왼쪽)과 향만시설.

셋값도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용해동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2013년 4분기 2909만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2분기엔 2975만원까지 올랐다.

◇백련·용해지구 올해 첫 분양 아파트 '천년가' = 목포 구도심권 부동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달아오르고 있지만 올해 구도심권엔 단 한곳에서도 아파트 분양이 없었다. 이 때문에 백련지구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새천년종합건설의 '천년가'에 대한 주목도가 남다르다. 토목 분야와 관광 부문에서 건설한 입지를 다진 새천년종합건설이 주택사업에 진출한 뒤 목포 옥암동 코아루 천년가가 이어 두 번째로 목포에 선보이는 아파트이기도 하다.

'천년가'는 백련지구 B-1 블럭에 433가구 규모로 예정돼 있다. 지하 1층~지상 15층 9개동, 전용면적 84~103㎡의 세 가지 아파트형으로 구성된다. 인기가 가장 높은 옛 33, 34평형에 대형 평형대인 39평형도 함께 들어선다. 인근 아파트의 단지 규모가 300가구 대인 점을 감안하면 대단지로 볼 수 있다. 전 세대가 최신 추세인 '핀상형+타워형'의 혼합형으로 지어지

며, 정남향으로 배치된다. 여기에 4베이(4-Bay) 최신 평면 설계를 도입해 확장 및 수납공간 극대화 가능한 구조를 갖췄다.

새천년종합건설 관계자는 "백련지구 천년가는 최고 수준의 내부 마감과 외부 경관 특화 등 목포에서 가장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걸맞도록 지어질 것"이라며 "이순신대교와 무안공항 4차선 진입도로, 국가 SOC사업, 경기도 안산의 상가 재건축사업 등 전국을 무대로 활발히 활동중인 새천년종합건설이 이름을 걸고 목포에서 가장 살고 싶은 아파트로 짓겠다"고 말했다.

옥암코아루 천년가가 이미 목포 주민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은 만큼, 백련지구에 들어설 천년가에 대한 기대치도 큰 편이다.

백련지구 인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목포시 전체적으로 잠시 아파트 분양이 소강 상태인데, 천년가가 백련지구 주거타운의 막을 올리는 셈"이라며 "산단을 주위에 둔데다 생활 인프라 역시 좋아 투자 및 내집 마련을 위한 수요가 몰려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19.03 (-18.59)	▲ 금리 (국고채 3년) 1.74% (+0.02)
▼ 코스닥 712.86 (-17.61)	▲ 환율 (USD) 1168.40원 (+10.00)

광주·전남 주요 사업장은 휴가중

기아차·금호타이어·삼성전자 등 다음달 7일까지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기업 사업장들이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 집중적으로 하계 휴가에 들어간다.

30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임직원 7200여 명으로 지역 최대사업장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다음달 3~7일까지 전 직원이 휴가길에 오른다. 휴가기간은 5일이지만 8월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직장 9일의 휴가가 가능하다. 생산라인은 10일 오전 7시부터 재가동된다.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임직원 3800여 명은 8월1일부터 5일까지 집단 휴가를 갖는다. 휴가비는 임·단협에 근거해 1인당 50만원씩 지급된다. 휴양지도 안도 명사십리와 무주 등 2곳에서 운영한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도 4000여 명의 임

직원이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5일간 휴가에 들어간다. 생활기전 중 에어컨 제조라인은 여름철 판매 성수기인 점을 감안해 다음달 15~19일까지 휴가에 들어간다.

1만3000여 임직원이 일하는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은 8월 3~7일 집단 휴가를 실시하고, 진도 가계해수욕장에 휴양소를 마련했다. 보해양조 장성공장은 8월4일부터 나흘 동안 200여 명이 하계 휴가를 떠난다.

대형 사업장이 집단 휴가에 돌입하면서 협력업체들도 대부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수산단과 광주 하남산단, 대불산단 등 주요 산업단지 입주기업들도 8월 초를 전후로 휴가에 돌입, 3~5일, 길게는 9일간 휴식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임동률기자xian@kwangju.co.kr

시공능력 100위권에 광주·전남 15개사

호반 15위·금호 17위

광주·전남지역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15개사가 올해 전국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 100위권에 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는 30일 전국 1만116개 종합건설업체의 공사실적과 재무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업체별 토건시공능력을 산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호반건설(15위·전남)과 금호산업(17위·전남), 우미건설(37위·전남), 중흥건설(39위·전남), 중흥토건(47위·전남) 등 5개 업체가 50위권 이내에 포함됐다. 이어, 라인건설(55위·전남), 금광기업(70위·전남), 제일건설(79위·전남),

서경개발(80위·광주), 남해종합개발(89위·전남), 동광건설(93위·전남), 남양건설(95위·전남), 남화도건(98위·전남), 모아종합건설(99위·광주), 해림건설(100위·광주) 등 10개사가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1~100개사에 이름을 올렸다.

호반건설은 올해 평가액 2조152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광주·전남 건설업체 중 1위를 수성했다. 금호산업은 1조822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계단 상승했다. 우미건설도 7312억원으로 2계단 뛰어 올랐다. 이어 중흥건설은 71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3계단을 상승했으며 계열사인 중흥토건은 5805억원을 기록, 전년보다 35계단을 뛰어오르며 50위권 안에 포함됐다. /임동률기자xian@kwangju.co.kr

금융 민원 70%는 보험 불만

광주·전남 상반기 921건

광주와 전남지역 금융 관련 민원 10건 가운데 7건은 보험불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지원장 박용찬)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올 상반기에 처리된 금융민원은 모두 13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건(3.1%) 증가했

다.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한 상담은 733건으로 1년 전보다 87.5%나 늘었다.

처리된 민원 가운데는 보험 민원이 921건으로 70.0%나 차지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이나 신탁·카드사·여신전문회사·신용정보사와 관련된 비은행 민원 215건(16.3%), 은행 민원 169건(12.9%), 증권 민원 10건(0.85%) 순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펜션·찻집·식당

전원주택지, 요양(병)원·연수원 적합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 2-5번지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으로 연 3억이상 순수익 창출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 정도 상승 가능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시세/감정가 - 30억원
- 매매 - 22억원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18개월후 20억까지 대출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급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광전파크 빌라

- 34평 - 2013년 신축
- 5층 중 2층, 첫 입주, 정남향
- 신우APT 105동 옆, 엘리베이터
- 대출 1억 1천만원 안고
- 사정상 급매 - 1억 6천만원(8/3일까지)
- (시세/분양가 - 1억 9천만원 정도)

주인직매 H. 010-3605-5000

돈되는, 근린상가

매매 임대

현재, 뷔스 Bar 운영으로 최고 수익!

- 금호동 서광병원 맞은편, 7층중 7층 120평
- 레스토랑/레스토랑/카페/커피전문점/호프/PC방/헬스장
- 재즈바/노래홀/룸수주방/단란주점/7080/당구장 등 최적
- 매매-5억 5천만원(대출 3억 6천만원 포함) 60평 분할 매매-3억원
- 임대-보 1억에 월 300만원 60평 분할 임대-보 5천에 월 17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